전법 일기

오온이 공함을 알게 되니 "중생 위해 살겠다" 서원

처음 해리(Harry·가명)를 본 것은 주한미군 잡지에 조계종 국제포교사를 멋지게 소개한 기사에서였다. 4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이 봉사를 한다기에 처음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미군부대가 주둔한 도시에 살고 있어 미군들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미군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귀의시키려는 서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흔히들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인 미국의 국민이자 군인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잘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군 상당수가 자살을 한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해리는 불교의 살생을 금한다는 계율과 함께 자살도 살생이며 내생에 그 업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군부대 내에 직장을 잡고 부대 안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사실 해리는 삶의 꿈이 있었다. 해외지사에 수년간 근무하며 저축을 하고 있었고, 목표액이 만들어지면 귀국해 집을 장만하고 가정을 이루려 했다.

그런데 별안간 아버지가 속히 귀국을 종용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때로는 아버지에게 물건을 들고 폭력을 휘둘러 위험한 지경도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를 말리다 사고라도 날까 염려되니 아들이 귀국했으면 좋겠다는 전언이었다. 큰형은 이미 작고한 상황이고 다른 형제도 돌볼 상황이 안돼 결국 막내인 해리가 직장을 사직하고 귀국했다.

해외 근무시절에는 퇴근 후 회사 숙소에서 환산 스님의 참선 방송을 보고 실참하며 참선 수행을 하고 영어로 된 불교서적을 읽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었다. 때로는 해변으로 포행을 하기도 하였다. 포행을 할 때는 언제나 〈반야심경〉을 염송했는데 어느 날 포행 중 별안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머리가 시원해지며 〈반야심경〉 내용이 눈앞에 펼쳐지며 이해가 됐다. "관자재보살님께서 행심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확연히 이해가 되니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을 알게 됐다. 이내 환희심이 일어났다. 더 이상 집착에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과 힘이 생겼다.

해변을 포행하며 경험한 그 순간을 나누며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살리라 서원을 세웠다. 아버지는 병환이 악화돼 극락으로 가셨다. 평생 학자로 살면서 불법을 가르치신 아버님은 분명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극락에 계실 것이라 확신한다.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지만 불쌍한 중생으로 보면 너무나 가여워 변을 사방에 묻혀도 가슴에서 눈물이 난다. 중생들이 너무나 가엽다. 어머니가 생존하고 계신 동안 집 근처에 주한 미군부대에 수많은 가여운 중생을 위해 전법을 하리라 서원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⑮ 성철 스님의 오도송

본질 함께 봐야 깨달음의 눈 얻는다

청산은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있네

황하가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 오르니(黃河西流崑崙山)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졌네(日月無光大地沈)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리니(遽然一笑回首立)
청산은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있네(靑山依舊白雲中)

성철(1912~1993) 스님은 동아시아 근현대불교사의 거성(巨星)이다. 팔공산 성전암에서 수행할 때는 철조망으로 암자를 둘러치고 10년을 두문불출하며, 투철하게 눕지 않고 장좌불와(長坐不臥) 정진래 수행의 전범을 보여 구도자의 표상이 되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를 참배했을 때 영접하지 않고 "산에 사는 중이 뭐 할라고 대통령을 만나노"라고 하였다.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의 본분이 아니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 일화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선가의 귀감(龜鑑)이다.

한국 현대불교는 성철 스님에 의해서 국가와 일반 대중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존중과 귀의의 종교적 위상을 회복하였다. 스님을 찾아오는 모든 신도에게 평등하게 돈 보따리와 계급장은 일주문에 걸어놓고 들어오라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3000배를 시켰다.

1981년 조계종 제6대 종정에 추대돼 취임식을 대신하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법어를 내렸는데, '이 법어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문제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상세계는 눈으로 보면 그냥 "산은 산이다." 그런데 공(空)의 이치를 깨닫고 보면, "산은 산이 아니다." 현생계의 사물(色)은 실체가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연화합으로 잠시 모습을 만들고 있는 허망한 환상(空)과 같은 것이다. 즉, 색즉시공(色卽是空)이다.

현상계와 본체계의 세계를 확실히 깨닫고 보면 "산은 역시 그대로 산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가 역시 진리의 세계이다. 현실의 세계를 볼 때 본질의 세계를 함께 봐야 변화하는 현실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 참된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성철 스님은 1·2구에서 "황하의 물이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에 오르니"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언어도단이다. 현상계의 존재(有)를 부정하는 공(空, 본체계)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깨달음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중국은 서쪽이 높아 대체로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가장 높은 곤륜산은 서쪽에 있고, 여기에 황하의 발원지가 있다. 황하가 동쪽으로 흐르는 데서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다. "황하는 일만 번을 꺾어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원나라 고봉(高峰) 선사는 선의 요체를 밝힌 설법집인 〈선요〉에서 이런 깨달음의 경계를 "그 순간 온 우주가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땅 전체가 푹 꺼지는 걸 느꼈다"라고 하였는데, 성철 스님도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졌네"라고 하였다.

3구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리니"는 선가에서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켜서 머리를 돌리는 깨달음을 표현한 용어이다. '전심(轉心) 회수(回首)'이다. 4구 깨닫고 나니 "청산은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있네"라고 했다. '촉목청산(觸目靑山)'이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 일상생활과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청산'은 깨달음, '흰 구름'은 일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성철 스님은 〈본지풍광〉 〈선문정로〉 〈한국불교의 법맥〉 등 걸출한 선서(禪書)를 남겨 선학과 참선 실수를 통한 오도(悟道)의 경계를 겸수한 우리 곁에 함께 했던 큰 바위 얼굴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올해 봉축도 등을 만들고, 등을 단다

부처님오신날이 가까워지면 도심 곳곳이 알록달록한 연등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올해도 거리를 환히 밝힐 연등 제작에 수많은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찰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연등에는 저마다 발원이 함께 스며있다.

조계종종무원조합도 바쁜 업무 속 짬을 내 연등 만들기에 나섰다. 종무원 300여 명은 4월 11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서별로 '1인 1연등'을 만들고 있다. 이들이 정성스레 만든 연등은 4월 25일 조계종 총무원 로비를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도 각자 자리에서 연등을 만들며 봉축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독특한 장엄등으로 주목받는 한마음선원은 골조, 전기, 채색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팀을 꾸려 연등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동국대 대학생 불자들도 교내 연등공방에서 학교 마스코트인 '아코등' 제작에 한창이다.

우리는 왜 해마다 연등 제작에 마음을 쏟을까. 하나하나 연잎을 꼬고, 풀을 바르고, 골조에 꽃잎을 붙이는 모든 과정이 수행이고 발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행은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할 때 더 깊은 울림을 준다. 함께 등을 붙이고, 서로의 손을 거드는 그 순간마다 마음은 밝아지고 자비심은 또렷해진다. 봉축은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다.

불교 경전에는 등불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루 한 푼 구걸로 살아가는 노파가 밤새 모은 돈으로 기름 한 방울을 사 부처님께 공양올리니, 그 등불은 부잣집 수많은 등보다 더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정성이 담긴 연등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마음 깊이로 빛을 낸다는 뜻이다.

올해도 우리는 등을 만들고 달면서 나의 안녕과 가족의 평안, 이웃의 행복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은다.

직접 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연등 만들기.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조금 더 뜻깊게 보내고 싶다면, 직접 등을 만들어보자.

오롯이 '나만의 봉축'을 위해. 또 세상 모두의 평안을 위해.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